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 1878~1879년 천주교 박해 체험자 이 마르타의 회고를 다시 읽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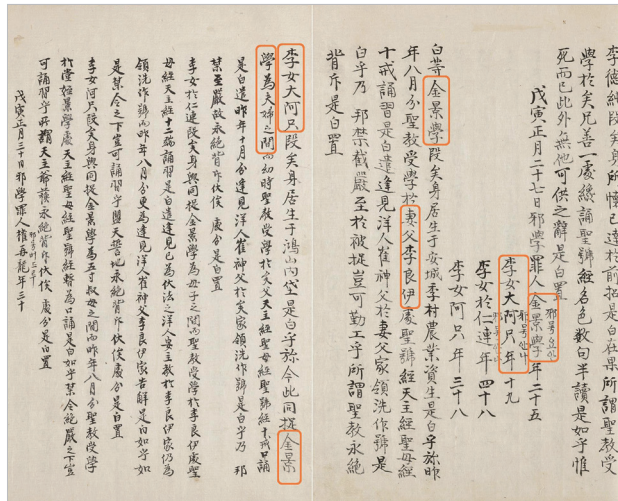
- 구술자 이 마르타와 그의 아들 김중묵에 대한 내용 소개 -

필자는 지난 두 번(116~117호)에 걸쳐 이전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회고(구술) 자료를 활용하여 1878년 리델 주교의 체포와 석방(중국 추방), 1879년 드게트 신부의 체포와 석방(중국 추방)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되거나 옥중에서 치명(致命, 순교)한 신자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구술 자료는 1935년 당시 79세[1857년생]였던 ‘이 말다’[마르타의 구술[아들 김중묵이 필기]을 수록한 「박해의 전반기(前半生)을 회고함」[『가톨릭청년』 28호(1935년 9월), 82~94쪽]입니다.

1878년 리델 주교 체포와 연관되어 용인 소우리[현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우명동]에서 이 마르타의 부친인 이석교(李錫敎) 요한 사도와 이 마르타의 오빠들인 이성일 토마스, 이성현 레오가 체포되어 옥중에서 치명했는데, 이들은 『우포청등록(右捕廳騰錄)』에 나오는 이석교(李石敎), 이선일(李善一), 이덕순(李德純)과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1878년 음력 1월 안성에서 체포된 이병교(李秉敎, 레오. 1879년 드게트 신부와 같이 체포되어 포도청에서 옥사함. 이 마르타의 이모부)의 딸과 사위(리델 주교의 옥중수기와 『우포청등록』에 나오는) 이 마르타의 이종사촌과 그 남편임이 그 구술에서 확인됩니다. 이종사촌의 남편은 ‘금수정 김씨’인데 영평(永平) 지역[현 포천시 영중면·창수면 일대]에 자리를 잡은 구(舊) 안동김씨를 가리킵니다.

Le 5 février, il se fit un grand bruit dans le pistorie; on ne voulait pas me laisser voir, ni me dire ce dont il s'agissait. Je compris bientôt que c'était des prisonniers qu'on amenait; j'entendis même des soupirs, c'était comme des voix d'enfants qui gémissaient. La pensée que ce pouvaient bien être des chrétiens me vint naturellement; et le lendemain, je n'eus plus de doute quand j'entendis le juge crier assez haut: «As-tu étudié, père de l'Européen?» On arrêtait donc toujours les chrétiens; Combien étaient-ils? qui étaient-ils? impossible de le savoir. Plus tard j'appris qu'on avait arrêté une jeune femme de 18 ans, mariée depuis 10 jours; c'était la fille d'un vieux petit noble coréen Ni Lion, chrétien fervent, qui a servi beaucoup les Pères; j'ai vu moi-même pour seroant en 1867; à cette époque, il était maître de maison de St. Thérèse. Son fils aîné Ni Jean accompagnait le même Père. Elle fut prise avec son mari, c'était encore deux enfants; après le jugement,



『우포청등록』 27책 7a-7b - 김학경 요한과 이큰아기 안나이병교의 사위와 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이석교 삼부자가 용인 소우리에서 체포되었을 때 집과 재산이 몰수된 이 마르타 가족은 서로 헤어져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마르타는 용인현 이방에게 보낸 관졸에게 붙잡혀 이방의 집에서 1년간 감금되어 있다가 모친과 연락이 닿아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후 드게트 신부와 그의 복사 이경빈(李景彬 요한. 이병교의 아들, 이 마르타의 이종사촌)을 만나 공주 신부댁에 거주하다가 드게트 신부 일행과 함께 1879년 5월에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함께 공주 감옥에 갇힌 이 마르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1880년 2월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마르타의 구술을 통해 1878~1879년 선교사제와 신자들의 체포라는 역사 현장 속에서 이 마르타 가족과 신자들의 체포와 치명, 그 자신의 옥중 생활과 석방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제의 서한과 후대의 증언록, 관변 측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이 구술 내용이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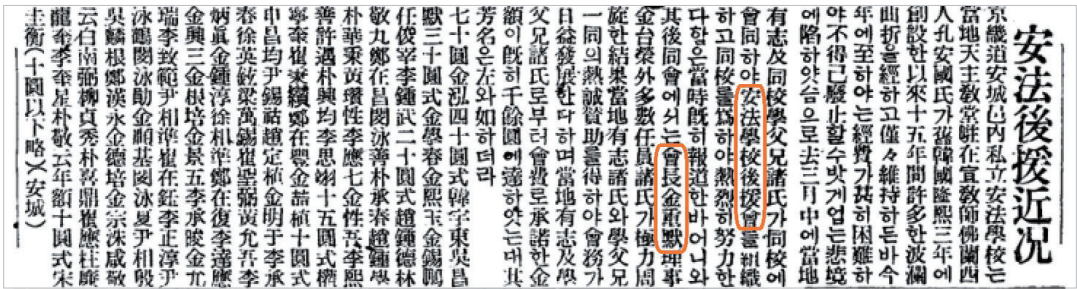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이 마르타와 그의 아들 김중묵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1880년 석방 이후 1935년 구술 시기까지 이 마르타의 인생 역정

이 마르타 회고의 마지막 부분(『가톨릭청년』 28, 91~94쪽)에는 1880년 1월 1일(양력 2월 10일) 공주 감옥에서 풀려난 후 1935년 구술 당시 시점까지 살아온 55년간의 인생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 마르타는 신자들이 살고 있는 논산 강경리로 길을 떠났는데, 다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험한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끝에 강경리로 내려온 이 마르타는 거기서 휴식을 취한 후 전라도 다리실 이 요한 집에 가서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보호자가 된 이 요한을 따라 배재, 덕방이 지역으로 이사했고, 1881년에 평택 머리아에 살던 모친과 만나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1883년 그의 나이 27세 때에 모친의 주선으로 안동김씨인 김상암(金相闇) 도매(토마)시를 만나 혼인을 했습니다. 이 마르타 부부는 서울 난동 블랑 주교댁에 이사 오면서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교댁 하인(복사)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들 김중묵(金重默)이 1886년 3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개월만인 6월 21일 남편 김상암이 전염병

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나이 30세에 과부가 된 이 마르타는 갓난 아들과 함께 둘만 남게 되었지만, 친정이나 시댁 모두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마르타 스스로가 삶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고, 계속해서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양지 배마실과 안성 바울의 이종사촌 이 요한 집에서 몇 해를 살았는데,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난리를 피해 서울로 올라와 남의 집에 방 하나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 마르타가 전염병에 걸리자 집주인에게 쫓겨나 남산 밑에 움막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의 도움으로 병이 나은 후에도 움막에서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하루하루 품삯 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불쏘시개로 쓰려고 소나무에 붙어있는 삭정이(말라 죽은 가지를 주우러 갔다가 실족해서 어깨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개신교 병원인 제증원에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전과 같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우고개(하우현에서 7년, 용인 오산[오산수]에서 2년, 안성읍내에서 20년을 살고 다시 원산으로 이사해서 구술할 때까지 10년을 살았다고 구술했습니다.



안법학교후원회 회장 김중묵 - 『동아일보』 1146호(1923.10.18) 4면.

### 이 마르타의 아들이자 구술 기록자 김중묵 마르코 - 안성본당과 안법학교 발전에 공헌

이 마르타는 1935년 진술 당시 79세였으므로 역산하면 1857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1866년 이전 시기부터 1870년대까지 자신과 가족이 겪었던 천주교 박해 과정을 구술했고, 1880년 석방 이후 자신의 삶(결혼과 아들 출산, 남편 사망, 병고와 사고, 이사 다녔던 곳(교우촌, 본당지역)을 회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격변기의 천주교회 사정과 순교자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공식적인 박해가 중지된 뒤에도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고달프게 살았던 신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르타에 대한 다른 기록(관변, 교회)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의 아들 김(중묵) 마르코와 관련하여 선교사제의 서한에서 한 번 확인됩니다.

안성본당 초대 주임이었던 공베르 신부의 1907년 1월 31일 사목서한(무텔문서 1907-14)에 “마르타의 아들 김 마르코”가 서울로 올라가는 김에 신부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수원교회 사연구소 편찬, 『공베르 안토니오 신부 자료집』, 천주교수원교구 안성성당, 2024, 128쪽] 여기에 나온 마르타는 ‘김 중묵의 모친 이 마르타’로 보입니다. 늦어도 1907년 이전에 이 마르타와 김중묵 모자가 안성 지역에 정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김중묵 말구(마르코)가 1926년 원산으로 이사하기까지[『경향잡지』 599호(1926.10.15.), 451~452쪽] 이 마르타가 아들과 함께 20년간 이상 안성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중묵은 안성본당 주임 공베르 신부를 보좌하면서 20년간 안성본당과 안법학교(1909년 개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신자입니다. 김중묵은 동아일보(1920년 창간)의 수원지국 관내 안성분국의 분

국장이었다가 1921년에 사임한 내용이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동아일보』 234호(1921.4.19) 1면.] 1923년 안법학교가 재정난으로 폐교될 위기에 처해지자 김중묵을 비롯한 신자들과 안성주민들이 뜻을 모아 기부금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중묵이 모금위원 3인 중 한 명으로, 나중에는 후원회장을 맡아 안법학교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동아일보』 975호(1923.4.30) 3면과 1146호(1923.10.18) 4면.] 1924년에는 안법학교의 생도감(生徒監)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동아일보』 1232호(1924.1.12.) 3면.] 이러한 김중묵의 활동에 대해서는 수원교회사연구소가 2024년에 편찬한 안성 자료집 1~2(『안성본당 자료집』, 『공베르 안토니오 신부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료집에 대해서는 상교우서 111호(2024년 8월호) 참조할 것]

이 마르타의 아들 김중묵(마르코)은 외할아버지와 외숙부 2명이 순교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홀몸이 된 심심 깊은 모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 선교사제 공베르 신부를 도와 안성본당과 안법학교 발전에 기여했고, 모친의 구술을 기록하여 귀중한 사료를 후세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천주교사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 자료가 발굴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상교우서 지면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 ▲바로잡습니다

『상교우서』 111호(2024년 8월호) 4쪽. 『『천주성교십이단』(줄여서 ‘십이단’이라고 함)의 간행 과정』 두 번째 문단 6~7째줄 “1886년판 ‘십이단’은 아직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에 소장된 『현주성교십이단』이 1886년 간행된 초판본으로 보입니다.”에서 ‘초판본’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울산대학교 노경희 교수님이 파리외방전교회 ‘프랑스 아시아연구소(Irfa)’에서 직접 촬영하신 1886년판 『현주성교십이단』을 확인한 결과 초판이 아닌 ‘중간’(重刊)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초판이 언제 출간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며, 향후 연구주제입니다. 귀한 자료를 보여주신 노경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천주성교십이단』 관련 내용을 더 조사하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식과 공지

####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6호 원고 모집 (마감 연기)

- 투고 마감일 : 2025년 1월 31일 (2월 15일까지 연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 심사를 거치는 정규 학술논문 이외에 보고서, 서평, 자료 소개[해제], 번역문 등 교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글과 자료도 『교회사학』에 신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드립니다.

####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